

환경윤리와 기독교적 세계관

유정철(경희대학교 생물학과)

1. 오늘날의 지구환경위기의 문제

1.1. 인구문제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인구는 창조세계에 가장 큰 위협.
- 지구 수용력의 한계치: 200억?
- 개발과 보전의 갈등: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새만금간척사업 등 각종 간척사업.
-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주장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부시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후협약을 포함한 각종 환경협약 등이 다시 처음부터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결국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를 환경문제와 연관시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1.2. 동식물 서식지의 감소와 단편화 진행

- 지난 10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는 전체 삼림의 약 절반이 사라짐.
- 인도: 지난 100년 동안 전체 삼림의 85%가 사라졌음.
- 아프리카: 정글이 사막화의 초기단계인 초원으로 변해감. 건조지대의 약 70%에서 사막화의 징후를 보임.
- 중남미 지역: 열대 우림을 포함한 많은 삼림들이 가축 사육을 위한 초목지로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차례로 불태워짐.
- 열대우림의 파괴가 지구 전체의 기후 변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열대 우림과 삼림의 파괴로 매년 2만5천~5만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음.

1.3. 물부족 문제

- 세계 인구의 약 40%, 80여 개국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물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67년 발생한 6일 전쟁은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의 물길을 차단 한 데서 비롯됨. 현재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빼앗은 골란고원과 요르단강 서부 지역에서 물 공급의 83%를 의존하고 있음. 결국 이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 우리나라: 이미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위기를 맞고 있음.

1.4.. 동물복제와 인간복제 기술도입에 따른 희망과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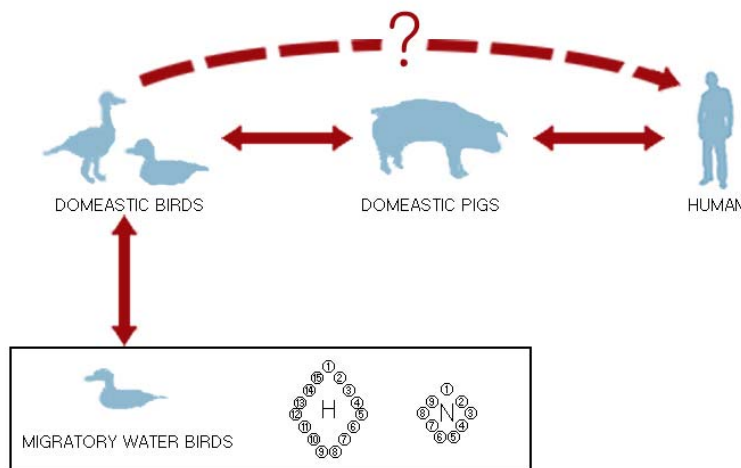
- 2000년 6월 26일 인간 유전자 정보(게놈)를 규명하기 위한 유전자 지도 초안이 미국과 영국에 의해 공개됨.
- 게놈(genome):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로 세포 핵 안에 들어 있는 유

전정보의 총체이며, DNA는 이 정보의 실질적인 물질적인 토대이다.

- 유전자 정보: 인간의 질병 뿐 아니라 인간 행동의 유전적 기초에 대한 연구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특히 유전적 질병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한 맞춤형의 탄생에 대한 찬반 양론.
- ‘유전자 불량자는 보험에도 못 드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음.
- 복제양 돌리 이후 각국의 동물복제 연구의 가속화와 생명윤리 문제 대두

1.5. 과학의 발전과 오용 그리고 미래

- 항생제의 광범위한 남용: 이미 습지에 사는 새들에게까지 항생제 내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음. (예: 민물도요에서의 항생제 내성)
- 내분비계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의 광범위한 피해: 어류의 암수비율의 교란, 동물의 기형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시대.
- 인수공통질병의 만연의 가속화: 야생동물들이 인간생활권내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AIDS(HIV)바이러스, 조류독감(Avian Influenza), 사스(SARS-CoV)바이러스, 웨스트나일(West Nile)바이러스 등과 같은 많은 새로운 질병들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그림 1】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 경로

2. 우생학적 사고와 인류 미래의 위기

허버트 스펜서 경(Sir Herbut Spencer): 영국의 사회경제학자이자 철학자.

-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지식인들에게 자신들이 누리는 부(富)와 명예가 자신들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 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므로 당연하다는 논리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었다.
- 스펜서의 ‘적자생존의 논’: “부자가 부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기 때

문이거나 그 두 가지 모두 때문이다”라는 논리였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 지도층들 중에는 거지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사회에서 자연도태 되어야 할 개체를 유지시켜주는 것이므로 자연선택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우생학의 근거가 됨.
-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 흑인과 백인이 같지 않다고 생각함.

2.1. 우생학적 사고와 인구가 통제되는 미래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인구를 통제하고 싶어 할 것임.

- 우생학이 과학적 대세로 기우는 세상의 도래.
-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개량하는 우생학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적어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위협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 인류 진화에 대한 위협성: 인류 진화의 정점에 아리안 민족이 있으며 유태인은 가장 열등한 민족으로 아리안 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등한 민족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히틀러.
- 우생학적 사고의 위협성: 우생학이 다른 어떤 주의(-ism)보다 더 우리의 미래에 위협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

3. 왜 그리스도인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 현재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환경문제가 적게 취급되는 이유?
- 현재의 창조세계보다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 땅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가?
- 자연의 창조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이유: 모든 생물과 자연은 인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시 50:12; 욥 41:11)).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자연환경의 관리자(창1:28).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죄를 짓는 것.
-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는 바로 세계관의 문제(White Jr., 1967).

3.1. 자연을 잘 가꾸어야 하는 이유

- 어떤 자연에서 사느냐에 따라 인간의 가치관이 결정되기 때문: (예) 고대 메소포타미아인(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의 범람)과 이집트인(나일강의 범람) (Mason, 1962)의 자연에 대한 인식차이.
- 각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원(庭園)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점을 나타냄: 프랑스식 정원(French garden), 영국식 정원(English garden), 일본식 정원.
-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 인간은 결코 자연과 분리되어 살수도 없는 존재.

4.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환경윤리

4.1. 창조성 회복의 의미

- 「자연의 창조성 회복」과 「인간의 창조성 회복」은 별개인가?
-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온 기독교적 리더십과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의 책임여부.
- 「인간의 소외」와 「자연의 소외」(유정철 2002).
- 세상을 부양할 특권과 책임.
- 모든 면에서 무한한 성장을 믿고 싶어하는 세대.
- 「자연의 창조성 회복」은 「인간의 창조성 회복」과는 별개의 것이 아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작품(창조세계)을 분리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자일 수밖에 없음(Van Dyke et al., 1996).
- 하나님을 단지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이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체험할 수 없다.

4.2. 생물의 멸종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적 세계관

왜 생물들이 멸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 “모든 생물들이 다음 세대로 유전(遺傳)되어야 하는”(창 7:2-3)것.
- 각 생물들은 인간의 가치 기준에 상관없이 가치가 있음. 각 생물들은 그것이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을 지탱케 하는 것이어서 가치가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각 생물들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
- 노아의 심판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시지 않고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신 이유: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그 씨를 온 지면에 남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
-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을 없애신 후 다시 말씀으로 간단히 그들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 노아의 가족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도록 하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노아의 가족들이 창조세계를 지키는 청지기의 직분을 스스로 깨닫기를 기대하심.
- 자연의 창조성 회복에 관심을 보일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창조성 회복도 가능해짐.
- 온 천하 만물(all creation)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막 16:15),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네메시스가 되어서는 안 됨.
- 하나님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창조 세계의 회복은 바로 창조주의 기쁨이 됨.

인용문헌

- Van Dyke, F., D.C. Mahan, J.K. Sheldon, R.H. Brand, *Redeeming Creation: The Biblical Basis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IVP, 1996. <환경문제와 성경적 원리, 유정철 역(서울: IVP, 1999)>.
- White Jr., L.,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203-1207, 1967.
- Yoo, J.C., Wetland: Noah's Ark for Birds of Korea, *The University Life*, Kyung Hee University, April 1, 1999a.
- Yoo, J.C., Current status of birds on the west coast and Cholwon basin of Korea. *Proceedings of IUCN/WCPA-EA-3 Seoul Conference*. pp. 166-183. 1999b.
- 유정철,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학, *통합연구* vol. 8, 27·28:109-126, 1995.
- 유정철, 환경윤리와 생태학, '96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pp. 84-90, 1996a.
- 유정철, 생태계보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인식의 필요성, *미스바*, pp. 173-180., 고신대학교, 1996b.
- 유정철, 신학과 자연과학, 『신학함의 첫걸음』, 장로회신학대학 역음, pp. 355-379,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